

# 감자 생산성 증대 빈곤 퇴치 '결실'

### KOPIA 에콰도르 센터, NU산하 PGRE로부터 '공로상'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KOPIA 에콰도르 센터가 UN산하 팩토글로블 레드 에콰도르(PGRE, 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22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acto Global(영문명 Global Compact)은 2000년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해 창설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현재 160개 이상 국가와 70개 이상의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9,500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는 에콰도르에서 공익적 사회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퇴치, 노동, 교육, 사회봉사 등 17개 분야에서 50여 단체 및 개인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특히,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빈곤퇴치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감자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인프라 구축, 농업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Pacto Global의 사업목표인 Hunger Zero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에콰도르의 감자 수량은 12톤/ha으로 인근 국가인 페루 등 세계 평균(15톤/ha)보다 낮다. 이에 센터는 씨감자 보급률이 8%로 낮은 것이 원인을 밝히고 씨감자 보급률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조직배양, 수경재배 기술 지원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는 감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7개 주, 16개 농가조합, 276개 농가를 선정해 마을단위의 사업인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웅 청장은 "이번 공로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KOPIA 에콰도르 센터가 UN산하 팩토글로블 레드 에콰도르(PGRE, Pacto Global Red Ecuador) 네트워크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22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는 결과이며 KOPIA 사업에 대한 적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불용물품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

전개공, 정보소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지원 가능토록  
한국IT복지진흥원에 컴퓨터 등 사무기기 72점 무상양여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공사 물품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공사는 29일 불용물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소의 취약계층에게 무상지원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인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양여했다.

양여된 불용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공사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컴퓨터, 모니터, 팩스 등 사무기기 72점이다.

공사는 그동안 저가 매각되거나 자체 폐기됐던 불용물품을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양여하고 진흥원

은 양여받은 불용품 중 활용 가능한 물품을 수리해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게 된다.

수리된 물품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과 장애인시설,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지원되며, 신청은 한국IT복지진흥원(02-2015-3500)으로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상양여를 통해 단순 폐기되던 불용물품이 '사랑의 물품'으로 다시 태어나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상의 전복인자위, 'Skill-UP' 간담회

### 폴리텍 김제캠퍼서서 인력양성 현황 점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복인자위')는 29일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에서 2020년 제3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양성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복인자위가 주관한 제3차 Skill-UP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김제시 경제진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를 비롯, 전북지역 내 4개 공동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캠티종합기술원) 등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현황과 지난 10월 현재 20여명 지원 방안, 4/4분기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전복인자위는 올해 구직자 양성훈련 7개 과정 150명, 재직자 향상훈련 75개 과정 2,146명 등 총 2,296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기준 1,919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8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복인자위는 7~8월 2개월 간 도내 5인 이상 299인 미만 규모의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향후 교육훈련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전북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과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인력양성 유관기관이 일자리 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전복인자위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북지역의 고용 대책이 시급한 만큼 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LX 공간정보연구원

### 산학협력 R&D 현장시연회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화영)이 지난 28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산학협력 R&D과제의 중간성과 공유 회의와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간정보연구원은 2017년부터 3년간 공간정보 유망기술 개발 및 지역상생을 위해 80억 규모의 '산학협력 R&D 과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중 올해는 지정과제로 진행 중인 '신기술 적용을 통한 지적측량 업무방식 개선 연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유한필 지적사업실장은 "지금까지 인아측량의 경우 수목 등 장애물로 인해 측량성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해당 연구를 통해 수목 등의 장애물이 있어도 드론에 탑재된 위성 정밀측량 모듈과 수신기의 전자 송수신을 활용해 빠른 성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공간정보, (주)무한정보기술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화영 직무대행은 "산학협력R&D 사업을 통해 공사와 대학,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고객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 참여 창업가 대상 비대면 교육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9일 '전북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이하 드림스퀘어)에 참여하는 34명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인사, 노무를 주제로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운영했다.

드림스퀘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2 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창업 프로그램 등 창업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던 집합교육이 전환된 것으로 드림스퀘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Zoom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1차 비대면 교육 주제는 '경영자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상식'으로 공인노무사가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정에 진입하는 초기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근로기준법 상식, 근로계약서 작성법, 관련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북지역 2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북지역 자동차관련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회'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도내 소부장기업 지원 '함께 뭉쳤다'

### 전북중기청, 도·테크노파크와 '자동차관련 기업 지원협' 결성

###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지원기관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키로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단체가 전북지역 자동차 관련 소재, 부품, 장비기업 지원을 위해 함께 뭉쳤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근의, 이하 전북TP)는 29일 전북지역 20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북지역 자동차관련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지역 내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지원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성했다. 구체적으로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 수출

및 내수부진 등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체인업 육성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정부정책 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 결성의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제조혁신바우처, R&D, 수출, 자금, 보증 등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업계의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 완성차 대기업의 협력사 등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및 특장차 생산업체로 구성된 한국특장차 협의회 등 참석 민간 협·단체로부터 기업 소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 지원협의회는 전북의 산업과 학기술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TP 주관으로 매분기 개최할 계획이며, 지원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기관 실무협의회'를 각 기관 및 협·단체 부서장급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GM공장 폐쇄, 수출 경쟁력 약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특장차, 뿌리, 금형 등 주력산업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TP 양근의 원장은 "산업부의 수직적 자동차산업 지원과 중기부의 수평적 지원이 결합되어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촘촘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영화 촬영지의 중심으로

### 개발청, 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영화' 주제 토론회

### 도내 실제 촬영 흥행 거둔 작품 속 명장면 야외세트장 건립 강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9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네 번째 행사로 '영화 촬영지의 중심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원초적인 자연, 새만금에 매장된 보석 영화산업'을 보다 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추진전략과 사업 등을 제안했다.

(사)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은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새만금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의 할리우드 헝디엔 월드스튜디오를 사

레로 들며, 새만금에 야외 영화세트장 및 종합촬영소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터치스카이(주) 박인택 대표는 '새만금 문화콘텐츠 산업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발표에서 새만금은 전북의 인문학과 문화창조의 전등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고장인 만큼 '새만금 문화산업특별자치시'를 언급했다.

전북대 김진 교수는 '새만금, 영화산업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최대의 영화촬영소, 영화박물관, 전북에서 실제 촬영돼 흥행을 거둔 영화 속의 명장면을 야외세트장으로 건

립하는 시네스페이스 조성사업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 영상대학원 민병록 명예교수, 이피디퍼처스 이치운 대표,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차민철 교수 등이 참석해 새만금의 영화산업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에 광활한 야외 촬영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새만금은 영화드라마의 야외 촬영 및 종합촬영 장소로 최적지라는 의견과 국내외 영화 기획, 제작자들이 새만금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제안 사업시행, 제도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배후회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에서 영화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향후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미래 유니콘 기업' 성장 위한 투자

### 전북도, 청년 창업가 간담회

전북도가 29일 (주)코아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와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웅 (주)코아 대표를 비롯한 12명의 도내 청년 창업가,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CU 김건우 대표는 "스타트업은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창업하면서 여러 지원사업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지만, 지금은 '전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구축돼 정보확인도 쉽고, 모르고 놓치는 일이 줄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전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

스가 창업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유스타코스메틱 김은주 대표는 창업기업을 위한 전북도의 지원채용 관련 지원사업을 건의했고, 그린로즈 김지용 대표는 창업기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기타 자본금 부족문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업지원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와 전북도에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요청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이야기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오고 갔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스타트업이 성공한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북도가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은행, 동절기 맞이 'JB 직장 어린이집 화재대피훈련'

최근 울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나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화재 발생이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 28일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직장 내 보육시설인 JB 직장 어린이집에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피절차 이해 및 수직·경사 구조대 등 피난기구 사용법 숙달에 중점을 두고 전북은행 안전관리실 직원들이 훈련에 동참해 안전통제 및 화재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중인 어린이집 4~5세 원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비상대피신호 확인과 대피로 및 대피장소 파악, 경사강하식 및 수직강하식 구조대를 사용한 안전구역에서의 대피요령숙달 순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